

---

第116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9年10月12日(火) 午後4時 開式

---

第116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議事擔當官 李錫和)

---

(16時 57分 開式)

○議事擔當官 李錫和; 지금부터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金箕英 議長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金箕英; 존경하는 高建 市長님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집행부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린 시정과 열린 교육을 펼쳐오신 결과 시정의 각 분야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문화의 달인 10월에 제116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26일까지 보름간 예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금세기의 마지막 임시회로서 의원 한분 한분이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심으로써 결실의 계절에 걸맞게 의정활동 또한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음 달 집회되는 정기회에서 실시할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결정하는 등 이에 따른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하며, 또한 1998회계년도의 결산을 승인하고 방대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심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민심을 살피고 이를 체계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제도를 도입하고 모니터요원 발대식을 오늘 가짐으로써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든다면 소각장 적정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교통카드 호환정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여성정책의 현안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선진 외국 도시와의 교류방문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캔사스주 세출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차세대지도자 한국방문단과 동경도의회 자민당의원단일행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우리 의회 대표단이 하노이시의회를 방문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머지 않아 금세기를 마감하고 비전과 희망이 가득찬 21세기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행사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차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진, 홍수와 같은 대형 자연재앙등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긴급재난방지시스템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바깥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계류중인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비판, 감시기능으로서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갑시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 시고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李錫和;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時 05分 閉式)